

“만주” 이주민소설의 역사의식 및 현실인식 연구

-- 『북간도』, 『두만강』과 『눈물 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서영빈(중국 대외경제무역대)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조선민족 수난의 상징인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소재로 다룬 조선, 한국, 중국 조선족의 해방 후 장편 역사소설들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세 지역 작가들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이 세 개 지역 한글문학의 공통성과 변별성을 한층 분명히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문학 연구학계에서는 북한문학과 중국 조선족 문학 나아가서는 재외 한인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통일문학사 기술을 위한 전초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한문학 연구는 초기의 월북 작가 연구의 범주를 뛰어 넘어 이미 해방 후 북한문학의 메커니즘 연구에 이르고 있다.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도 혹자는 한글 문화권 범주 속에서, 혹자는 해외 한인문학 범주 속에서, 또 혹자는 조선족의 자아 정체성 확인과 관련된 범주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한국문학, 북한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이 모두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고 하나의 전통에 맥을 잇는 한민족문학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문학사적 의의도 많은 부분 밝혀졌다고 하겠다. 민족문학사의 기술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중국 조선족 문학은 일본이나 러시아의 한인문학과는 또다시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 문학만이 한글을 지금까지도 서사매체로 오롯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어느 해외 한인문학과는 달리 중국 조선족 문학과 한국문학과의 가장 밀접한 상관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된 한민족문학사 기술이라는 거대한 흐름선상에서 파악할 때 북한문학연구나 중국 조선족문학연구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라 하겠다.

이처럼 북한문학과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한 연구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문학과 중국 조선족 문학,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의 대부분이 개설류의 소개서들이라는 점은 필자의 이러한 인식의 정당함을 뒷받침해준다. 작품론이나 작가

론이 생략되어버린 중국 조선족 문학 연구는 공중누각일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이 세 개 지역의 한글문학에 대한 영향과 교섭의 기본적인 상관성까지 거의 논의되어 본 된 적이 없다¹⁾. 구체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문학과 한국문학과, 중국 조선족 문학과 북한문학과, 교섭관계를 밝히거나 중국 조선족 문학의 한민족문학으로서의 과도기적 가치를 밝힌 연구 성과들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 문학이 한민족문학의 일부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작품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불모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은 중국 조선족 문학의 상대적인 양적, 질적 빈약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자료의 제약성, 연구 정보의 폐쇄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조선족 문학에 대한 인식의 한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만주” 이주민의 삶을 다룬 한국문학, 북한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가운데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가의 대표성, 작품 제재의 상관성, 작품 시공간의 일치성, 작품 형식의 동일성, 창작방법의 공통성을 고려한 결과 한국문학으로 안수길의 『북간도』, 북한문학으로 이기영의 『두만강』, 그리고 중국 조선족 소설로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비교 연구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리얼리즘의 창작방식으로 같은 시대를 역사배경으로 하여 “만주” 이주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고, 공통되게 가족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모두 대하소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안수길의 『북간도』는 문학사가들에 의해 ‘민족문학의 가장 확실한 거점의 하나’(김윤식, 정호웅)로 평가되어 왔고, 북한 인민상 수상작품인 이기영의 『두만강』은 북한에서 ‘민족서사시’(조선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역시 중국 조선족 문단에서 평단의 주목을 끌며 각종 권위적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 세 소설은 궁극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지키기”의 서사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연구들에서 필자는 안수길의 『북간도』, 이기영의 『두만강』,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대상으로 그 갈등양상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안수길의 『북간도』는 민족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골격을 형성한 소설이고, 이기영의 『두만강』은 사회의 기본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파악하고 주인공들이 겪는 계급갈

1) 필자의 조사로는 김준오의 연구가 유일하다. <조선족문학·한국문학·북한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 - 서술시를 중심으로> (김승찬 외 『중국 조선족 문학의 전통과 변혁』,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년 11월) 참조.

등을 고리로 하여 민족갈등, 애정갈등 등 여타 갈등을 내재한 소설이며, 『눈물 젖은 두만강』은 간도 개척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애정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내면에 민족갈등, 계급갈등을 반영한 소설임을 밝힌 적이 있으며²⁾ 또한 작가의 창작환경과 작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시대 “만주” 이주민들의 삶의 재현이란 서사적 명제가 그들의 소설 속에서 어떻게 문학적 수사로 형상화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³⁾. 또한 작품의 서사공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작품 속에서의 공간과 주인공들의 공간이동의 의미를 대조하여 작품주제와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기도 했다⁴⁾.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세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한다.

2. 역사의식 비교

소설에서의 역사의식은 주로 역사사건이나 역사인물들에 대한 주인공들의 태도나 서술자의 시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본고 고찰의 대상인 상기 세 소설 속에서도 작가들의 역사의식은 여러 도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의 굵직굵직한 역사사건들이나 역사 인물들이 모두 이 소설들에서 혹은 배경으로 혹은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할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갑오농민전쟁이나 민비시해사건 같은 것들이 소설 속에서 작가의 손을 거쳐 재구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국사에 대한 작가들의 태도를 통해 역사관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먼저 『북간도』의 경우 작가의 역사의식은 주로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집요한 추적에서 드러난다. 이한복이 감자 사건으로 월강이 발각된 후 중성부사 이정래에게 잡혀가서 문초를 받는 장면을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에에, 봐야 디릴 거는 강 건너가 우리 땅이라고 새겨 놓은 빗돌이고, 들려 디릴 거는 나라에서는 어째서 강 건너 우리 땅인 무인지경에다가 옥토르 두구서리 몇 헤르 내리 백서영 굽게 찍이느냐는 겹메다.”

그리고 한복이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득한 옛날, 만주는 우리 민족의 발상지였고 천여 년 전의 고구려와 그 뒤를 잇는 발해 때에는 우리 판도의 중심지였다. 지금

2) 서영빈 <남북한 및 중국조선족 역사소설의 갈등양상 비교>, 2006세계한국학대회발표논문,

3) 서영빈 <통일문학사 서술시각에서 본 중국조선족문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2006.10

4) 서영빈 <“만주” 이주민 소설의 공간연구>, 국제고려학회제8차국제학술대회(런던),2007.8

은 청국의 영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증거로 할아버지는 1백50여 년 전에 세운 정계비를 보면 알 일이라고 했다.(p.29)

그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말을 태산 같이 믿는 그”가 10여 년 전에 사냥꾼을 따라 백두산으로 갔다가 이상한 빗돌을 발견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문에 소양이 없는 이한복”이 비문을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가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빗돌임을 확신하면서 강 건너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앞의 인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술자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한복의 주장에 전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은 이한복이 사또를 모시고 정계비 답사를 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월강이 자유롭게 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한복이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해석상의 논란을 이해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은 그의 역사가관이 민족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만강』의 경우는 『북간도』와 조금 다르다. 『두만강』에서는 『북간도』처럼 과거에 대한 민족주의 신념에 기초해서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냉철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한다.

하다면 조선 인민에게는 반도의 삼천리 강산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겠는가?

고구려 시대에는 그의 판도가 멀리 송화강 유역까지 미쳤었지만, 3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와 이조에 이르는 동안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게 되었다. (③ p.131)

『두만강』이 보인 이러한 역사의식은 다음 절에서 고찰하게 되는 배경의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즉 중국에 대한 태도와 일본에 대한 태도가 판이하게 다른데 그것은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될 수도 있다. 반대로 『두만강』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나 임진왜란, 이완용의 친일행각 같은 것들이 소상하게 묘사된다. 작가에 의해 선택되고 재구된 역사가 작가의 역사의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노인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아들 관일이는 갑오년

농민 전쟁에 참가한 것을 자랑 삼아 말하였다. 갑오년 농민 전쟁은 역시 양반과 지방 관리들의 행악이 심하기 때문에 폭발되었다.(중략)

“우리끼리 말이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 때도 우스웠느니라. 제 집안 싸움을 남더러 말려 달라는 것도 분수가 있지. 글썄 왜놈은 우리 조선 사람과 불공대천지 웬썩간인데 어찌자구 웬썩놈들을 잡안 싸움에 불러 들였느냐 말야!”(①pp.86-87)

일본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인식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실인식이 작가의 역사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경우 백두산, 고구려, 발해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특히 광개토왕을 고구려왕들 중 가장 뛰어난 분(상.p268)으로 평가한 대목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술이 감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작가의 역사관이 뚜렷이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역사사건을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유포한 것은 동학혁명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과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선각자로 등장하는 석준이가 동학혁명에 참가했던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안수길의 경우가 민족과 가문의 역사에 있어서 기원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표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기영의 경우는 역사사건들에 대한 취사선택을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뚜렷한 역사의식을 보인 반면 역사에 대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최홍일의 경우는 민족사에 대한 애착과 긍지의 수준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현실인식 비교

상기 세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들이 동북아에서의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떠나서 “만주”나 간도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국들의 존재와 영향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작가들의 현실인식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성격, 성공여부에도 직결된다고 하겠다.

『북간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민족의식의 기반 위에 세워진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서의 민족의식은 주로 일본 침략세력과 청국과의 갈등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물들의 갈등관계를 통해 표현되는 대일, 대청 인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청국 관청, 특히 청국인은 작품에서 우호적인 일면과 적대적인 일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비봉촌의 지광주인 왕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수길의 광복 전 소설 이틀테면 <새벽>이나 <벼> 등 소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청국인 지광주는 그렇게 악한적인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범한 아량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 대한 송덕비를 흠족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마적의 습격에 역축을 잃은 조선 농민들을 위해 낮은 이자로 역축을 내어주는 것 등은 비록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대적인 행위는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청국의 관청을 대표하고 있는 육군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주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민족적인 차별이라기보다 부패한 군벌 정부의 행위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런 점은 중국 수비군이 조선인 학생을 오사(誤死)한 사건의 전후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조선인을 향한 악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제에 대한 경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정에서 3·13운동이 발생할 때 그 경비를 맡아 나서기도 하는 것이다. 비록 그 사건에서 일제의 간계에 의해 중국 육군이 멋도 모르고 조선 데모 군중에 총을 쏜 이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작가는 그것을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행위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작가의 자세는 비봉촌의 훈장이었던 조선생이 임종 유언으로써 창윤에게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은 마찬가지로”이므로 서로 손잡고 일제에 대항해 나서야 한다고 한 말과 창윤이가 억울하게 감방에 갇혔을 때 만난 혁명가로 짐작되는 중국인의 그와 비슷한 내용의 말, 그리고 일제의 대륙 침략의 야망을 간파한 중국인들의 조선인과의 협력 행위들에서도 잘 보여진다.

요컨대 안수길은 이 소설에서 중국인을 우호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고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청국관청의 부패와 일제의 민족이간 술책에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기 땅에 이주해온 조선인에 대해 비록 자신의 생존 환경을 위협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근로함과 정직함, 어진 민족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안수길의 대 중국인관인 셈이다. 안수길의 대 일본인관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 작품에서 분명한 얼굴로 그려진 일본인은 영사관 순경국의 경찰대장인 스에마쓰(末松) 경시 한사람뿐인데, 비록 많은 분량의 묘사는 없지만 그 간사하고 악한 본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3·13운동 당시 조선인 순경을 파견하여 시위 군중에게 사격하고는 그 조선인 순경마저 조선인 독립 단체의 이름으로 사살하는 것이

라든지, 중국 정부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선인들더러 자치 조직을 결성하도록 제안했다가는 그 역량이 자기들의 통치에 불리하게 되자 즉각 해산시키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장현도에게 독립운동가였던 이정수의 귀순을 책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결국 5년형을 선고함으로써 장현도의 안면은 조금도 보아주지 않는 등 스에마쓰 경시의 간교한 행위들은 일제의 침략 본성과 간교한 민족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적인 본성과 간교한 민족성은 구체적인 인물이 아닌 일제의 정부적인 행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조작해낸 훈춘 양민 사살 사건과 9·18 만주사변이다. 작가는 이 두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이 일제가 대륙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작해낸 간교한 행동이었음을 국제 국내적인 사회 배경과 역사적인 환경에 연관시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 외에 『북간도』의 현실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미국, 러시아 등 세력에 대한 시각을 들 수 있다.

만주와 함께 우리 나라를 손아귀에 넣으려던 제정 러시아의 야망! 그 불붙던 야망은 이렇게 해서 십나라 키 작은 민족한테 꺾이고 만 셈이었다.

장군 4년이나 점령했던 만주에서 쫓기고 만 덩지 큰 아라사 병정들!(중략) 벌써부터 영국과 더불어 팽창하는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걱정해 오던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그의 세력 범위하에 두는 것을 승인했었고 또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도왔다. 이젠 미국의 주선으로 강화조약이 이루어진 것이었다.(p.121)

안수길의 이러한 세계인식은 창작 당시 한국 사회의 역사인식을 담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되도록 주관성을 배제하고 세계인식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두만강』이 보여준 현실의식은 『북간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서술자 시각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용감무쌍한 로씨야 수병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국가를 높이 부르며 사랑하는 함대와 함께 장렬한 자폭을 하였다.로씨야의 군대는 이와 같이 용감하게 고상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였다.
(②p.24)

아, 그때 아라사가 해전에서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일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오.(③p.59)

고종의 아관파천이 있는 이후 제정 로씨야는 차유령의 처녀립 산판을 체벌하는 이권을 얻게 되었다. ……로일 전쟁 당시에 무산 주민들은 로씨야 군대의 군수 물자를 열성적으로 운반하였다. 그것은 첫째 로씨야는 왜놈과 같은 조선 인민의 구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로씨야 사람을 만나본 조선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의 소박한 인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③pp.157-158)

『두만강』의 이러한 대 러시아 시각에 대해 최원식은 작가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구한말에 있어서 부패한 제정 러시아는 일제와 똑같은 제국주의 외세였다. 그럼에도 작가는 이 점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나쁘고 러시아는 좋다’란 인식은 ‘일본은 좋고 러시아는 나쁘다’란 인식만큼이나 유해하다.”⁵⁾ 이 기영의 이러한 역사인식 역시 당시 북한 사회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작가 자신의 역사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창작에서의 자유로운 세계인식의 길이 막혀 있는 북한 사회에서 문학창작이 갖는 하나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세계인식은 『북간도』의 경우와 비슷하다. 러시아에 대한 시각만 보더라도 그렇다.

“소문에는 마우재눔덜때때 금전판이 싹 엉망진창이 됐다던데 정말인가?”

이번엔 매부되는 윤삼이 물어왔다.

“그 마우재눔덜은 범두 없는눔덜이요, 무턱대구 금을 뺏아내구 총으루 위협을 하구 그눔덜 등살에 기를 못꿨소. 시방은 괜찮다우, 그눔덜이 간달에 물러갔으이까.”

팔룡이가 욱하고있는 마우재눔들이란 광서 26년(1900년)에 훈춘으로 끌어들어왔던 로씨야군대를 말한다.

오래전부터 청국의 만주땅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짜리로씨야는 1900년 7월에 10만 대군을 출동시켜 7갈래로 만주를 침공해왔었다.(하, p.693)

5) 최원식, <소설과 역사의 범칙성>, 이기영, 『두만강』, 사계절, 1989년, p.326

상대적으로 최홍일의 경우는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에 대해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실재한 역사사건을 소설 속에 삽입할 때도 될수록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것은 최홍일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자아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국제 역학관계를 독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려니와 그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할 때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창작 환경의 자유로움을 척도로 고찰했을 때 중국 조선족 작가들이 처한 입장은 한국과 북한의 가운데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이 최홍일의 세계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4.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상기 세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리라 생각된다.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의 차이는 주로 작가가 처한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세 작가가 처한 사회 환경이 크게 다름에 따라 세 작가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안수길의 경우처럼 같은 작가라 할지라도 창작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북향보>>와 <<북간도>>처럼 같지 않은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나타내게 된다.

참고문헌

- 안수길, 『북간도』, 중앙일보사, 1987년
이기영, 『두만강』, 사계절출판사판, 1989년 3월
최홍일, 『눈물 젖은 두만강』, 민족출판사, 1999년 9월
- 강영주, <한국역사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년
김 몽, <민족수난사와 개척사를 폭넓게 펼쳐보인 최홍일의 ‘눈물젖은 두만강’>, 『문학과예술』, 1999년 6기
김재용,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과 투쟁의 서사시적 형상화>, 이기영, 『두만강』, 풀빛, 1989년
김종욱,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집, 2004년
김진영, <‘북간도’에 대하여>, 『국어교육』 34, 1979년
박은숙, <안수길 소설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년
서영빈 <남북한 및 중국조선족 역사소설의 갈등양상 비교>, 2006세계한국학대회발표논문

서영빈 <통일문학사 서술시각에서 본 중국조선족문학>, <<한국문학이론과비평>>,2006.10
서영빈 <“만주” 이주민 소설의 공간연구>, 국제고려학회 제8차국제학술대회(런던),2007.8
윤운진, <‘뿌리 찾기’와 ‘눈물 젖은 두만강’>, 『장백산』, 1996년 5기
이상경,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년
조남현, <‘두만강’을 통해 본 북한문학>, 『문학사상』, 1989년 6월
최원식, <소설과 역사의 범칙성>, 『두만강』 해설, 사계절, 1989년
최홍일, <북국의 땅 연변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 (머리말), 삶과함께출판사,
1994년 10월

김병욱 편, 『현대소설의 이론』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4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년
안수길,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년(한국문화사 영인본, 1999년 11
월)
임형택, 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88년
조남현, 『이야기꾼 · 리얼리즘 · 이데올로그 이기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년
12월